

불법 하도급 사망사고 땀 무기징역

정부 합동 '학동 붕괴' 재발방지 대책 발표... 피해액 10배까지 배상 '징벌제 손배제' 등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 정부가 불법 하도급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피해액의 10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배제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자에 대해서는 무기징역까지 부과하는 등 처벌 수위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와 합동으로 '광주 철거건물 붕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해체공사 안전강화 방안'과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해체공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체공사 단계별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확대 등 제도 이행력 확보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해체공사장 상시감시체계를 구축·강화하기로 했다.

해체계획서의 경우 전문가가 직접 작성토록 하고 해체계획서와 다른 시공을 하는 경우 변경허가 승

인을 받도록 하고 해체허가 대상은 지방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내실을 높이기로 했다.

해체 공사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는 높아진다. 업무를 성실히 하지 않은 감리자에 대해 과태료를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올리고, 해체 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처벌 조항도 신설한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에게 위협이 되는 해체 공사장에 대한 신고도 받는다.

고질적 불법 하도급 근절 대책도 내놓았다. 먼저 국토부와 지자체에 특별사법경찰을 배치, 행정조사가 아닌 수사를 통해 불법 하도급을 적발하기로 했다.

또 불법 하도급에 가담한 원도급·하도급·재하도급사 등 모든 건설사에 대해 2년까지 공공공사 참여를 막고 정보도 공개한다.

형사처벌 대상도 불법 하도급을 준 업체 뿐만 아니라 받은 업체, 발주자, 원도급사까지 확대하고 처벌 수준도 사망사고를 일으킬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도록 높인다.

사망사고 발생 시 불법 하도급을 주거나 받은 업체는 물론 지시·공모한 원도급사도 즉시 등록을 말소하는 '원스크라이프 아웃제'도 도입된다. 시공기간 공생관계를 끊기 위해 리니언스와 포상금 제도를 도입, 서로 감시하고 신고하는 체제가 가동된다.

현재 불법 하도급 업체는 2년간 시공능력 평가상 공사실적의 30%를 차감하지만 실적 차감을 3년간 60%로 확대한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국민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두지 않으면 한 번의 불법과 부실시공으로도 영원히 퇴출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건설현장을 만들어야 할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76주년 광복절 기념 '나라사랑 퀴즈'

광주백범기념관 15일까지

광주백범기념관이 76주년 8·15 광복절을 맞아 독립을 위해 공헌한 독립운동가들을 기념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10일 광주백범기념관에 따르면 광주백범기념관은 사단법인 백범문화재단과 함께 오는 15일 '나라사랑 퀴즈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 행사는 광주백범기념관이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분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매년 광복절에 진행됐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준비됐다.

이번 이벤트는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면서도 광복 76주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환기시키

고, '나라사랑'과 '광복'에 대한 역사와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자는 뜻으로 기획됐다.

나라사랑 퀴즈 이벤트는 총 3개로 구성이 돼있으며 광주지역 독립운동 현충시설, 8월 이달의 독립운동가, 백범 김구 선생의 여류 등에서 문제가 출제된다. 광주백범기념관 홈페이지에서 오는 15일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추첨을 통해 총 200명에게 '백범 가족 필통 세트'를 증정한다.

안종일 광주백범기념관 이사장은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빼앗긴 나라를 되찾는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금남로 '평화의 소녀상'에 헌화하세요

광주 동구, 14일 위안부피해자 기억·추모공간 마련

광주시 동구 금남로 공원 평화의 소녀상에 헌화행사가 조성된다.

10일 동구에 따르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회복을 위한 '기림의 날' (8월 14일)을 맞아 동구 금남로 공원 평화의 소녀상에 헌화 행사장을 조성해 주민들이 자유롭게 헌화할 수 있도록 한다.

헌화 행사는 오는 13-14일 이틀간 운영되며,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기림의 날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다중이 집합하는 공식 기념행사 대신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는 자유로운 헌화로 진행된다. 이곳에는 '기림의 날' 추모공간을 조성해 나비조형물을 설치하고 헌화용 국화를 비치해 시민들의 헌화를 돕는다는 게 동구의 설명이다.

올해는 '기림의 날' 기념부채도 제작해 평화의 소녀상에 헌화하는 시민들에게 무료로 배부할 계획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신병훈련소 1명 코로나 확진

밀접 접촉자 15명 등 비상

광주의 한 육군 신병훈련소 훈련병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해당 부대 아들을 입대시킨 부모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10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광주의 한 육군부대 신병훈련소에서 A훈련병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훈련병은 지난 3일 해당부대 신병훈련소에 입소했으며 입소전 PCR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아 입영했지만, 지난 9일 타지역에 거주 중인 부모가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PCR 재검사를 받았고 양성 판정을 받았다.

훈련병들은 입소 후 2주간의 코호트 격리 기간

을 갖는데, A훈련병 역시 10여명의 훈련병들과 생활관에서 코호트 격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훈련병의 밀접접촉자는 같은 생활관을 이용한 훈련병 14명과 담당 간부 1명 등 총 15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부대와 지자체는 훈련병들을 대상으로 PCR 검사에 들어갔다. 해당 부대 훈련병들은 2주간의 코호트 격리 기간 동안 생활관 단위로 생활했으며, 식사와 화장실 이용을 제외하면 외부 활동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군부대 관계자는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면 방역당국의 지원을 받아 훈련병들을 격리 공간으로 이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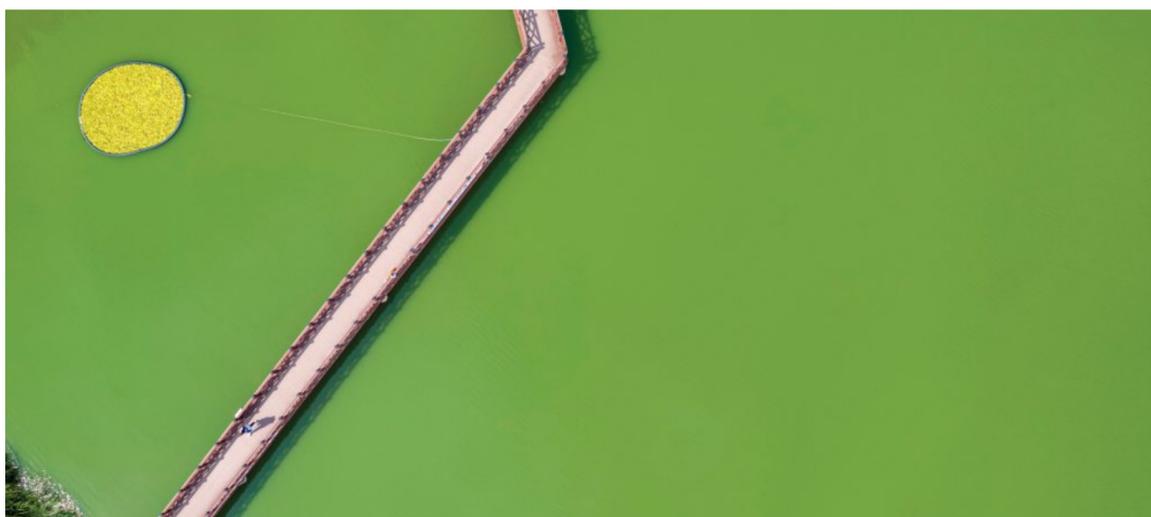
광주 남구 "독도는 우리 땅" 한반도기 게양

광주 남구는 76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와 남북간 통선연락선 복구 등 남북 관계의 변화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1주일간 한반도기를 게양한다.

10일 남구에 따르면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

1주일간 남구청사 앞 국기 게양대에 한반도기가 나부낀다. 국기 게양대에 내걸리는 한반도기는 지난 1989년 12월 남북 체육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잔디밭 아입니다...녹조랍니다 10일 광주시 서구 풍양호수공원에서 녹조가 발생해 물빛이 초록색을 띠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의료원 성공 위해 관료중심 운영 탈피해야"

광산구 의사회 성명서

광주시가 오는 2024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광주의료원'이 조속한 완공이라는 목표에 치우칠 경우, 자칫 광주의 특성을 담은 의료기관 확충이라는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 광산구 의사회는 10일 성명서를 내고 "공공 의료 확보 차원에서 시가 의료원 설립에 속도를 내는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타 지역의 여러 공공병원들의 실패 사례를 지켜 본 의사회로서는 건축에만 신경쓰다가 공공의료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할 소중

한 기회를 놓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성공적인 광주의료원 설립을 위한 제언 3가지를 내놓았다.

의사회는 먼저 광주의료원이 내실있고 역량이 있는 공공의료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관료 중심의 운영으로 실패를 거듭했던 기존 공공병원과의 차별성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광주의료원 설립 단계에서부터 의료원 규모 및 운영방식 등에 대해 광주시의사회, 일선 현장에서 임상 진료를 하고 있는 개원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광주시는 광주의료원이라는 한 곳의 공공

병원 확충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미래의 의료수요를 감안한 실질적인 지역 공공보건의료 체계 확충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이다.

이들은 또 광주의료원이 공공병원으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광주의 의료 취약계층과 취약 진료분야, 의료 수요 등을 감안한 '광주형' 의료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는 서울·수도권과 비교해 질환별 환자 비율 및 사망률이 다르고, 자살 환자 및 교통사고 사망자의 비율 등에도 차이가 있다. 획일적인 공공병원의 건립이 아닌 광주의 의료 수요와 공급을 총망라할 수 있는 지역 밀착형 의료원 건립을 촉구했다. /채희종 기자 chae@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행복이벤트

응모기간 2021년 3월 8일 ~ 12월 31일 **추첨** 2022년 정기추첨(22년 1월 예정) **행사대상** 신규 및 기존 거래자

응모방법 유니온 정기적금개설, 체크카드20만원 이상 이용, 출금자동이체, 신탁공제가입, 공공과자동이체 및 계좌이동제, 신탁혜유카드발급, 사업자 결제계좌, 연금자동이체, 사회적 예탁금 등

※ 중복응모가능, 동일 항목당 최대 2매까지(응모방식은 창구방문)

파워정기예탁금 I형, II형

12개월 연 1.7% 세전 / 만기해지

18개월 연 1.77% 세전 / 만기해지

1등 바디프랜드 안마의자 1명

2등 LG퓨리케어 공기청정기 2명

3등 제주도 2박3일 숙박이용권 5명

4등 키친아트 에어프라이어 15명

5등 테팔 세프드프랑스 프라이팬 100명

※ 제세공과금(22%)은 당 신탁이 부담하며, 경품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광주문화신탁영업점 및 홈페이지 등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흥본점 266-4150 (광주 북구 문흥로 38)

매곡지점 572-4150 (북구 설죽로 315번길1)

양산지점 573-4150 (북구 양산로 59)

침단지점 576-4150 (북구 침단안로9번길29-2)

운암지점 528-4150 (북구 북문대로 89)

동광주지점 264-4150 (북구 동문대로 187)

동림지점 513-4150 (북구 북문대로 238)

각화지점 263-4150 (북구 동문대로 283, 285)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신협중앙회 심의필 제2021-6호(2021.05.28.) 유효기간 2021.12.31.까지